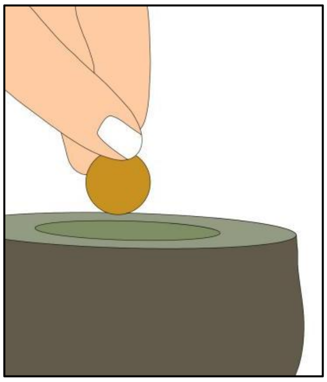


기독교의 자선 관습

구호품 -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옷, 음식 또는 돈

복음서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자선을 베풀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자선을 베풀 때에 위선자들이 회당과 거리에서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나팔을 부는 것처럼 하지 말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이미 자기들의 상을 받았다. 그러나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리하여 네 자선이 은밀하게 이루어지게 하라. 은밀히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친히 너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마태복음 6:1-4)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상처를 입힌 후, 그를 거의 죽을 지경으로 내버려 두고 갔습니다. 마침 그 길로 제사장 한 분이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는 못 본 척 지나갔습니다. 레위 사람도 그곳에 와서 그를 보고는 역시 못 본 척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길을 가다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가서 상처를 싸매 주고 기름과 포도주를 발라 바르고 자기 나귀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다음 날 떠나면서 두 데나리온을 꺼내 여관 주인에게 주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을 잘 보살펴 주십시오. 더 드는 비용이 있으면 다음에 다시 올 때 갚겠습니다.'" 이 셋 중에 누가 강도들에게 당한 자의 이웃이었느냐? 그가 대답하기를, 그에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누가복음 10:30-37

그러므로 너희가 가진 것 중에서 자선을 베풀어라. 보라, 너희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게 될 것이다. 누가복음 11:41

너희 소유를 팔아 자선을 베풀고, 낡지 않는 보물 주머니를 하늘에 쌓아 두라. 거기에는 도둑도 접근할 수 없고 좀도 먹지 못한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을 것이다. (누가복음 12:33-34)

사도행전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인 제구시에 함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태어날 때부터 다리가 불편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를 매일 성전의 아름다운 문이라고 불리는 곳에 데려다 놓고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했습니다.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했습니다.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그를 보고 말했습니다. "우리를 보시오." 그 사람은 그들에게서 무엇인가를 받을 것을 기대하며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나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가진 것을 네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베드로는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러자 즉시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겼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걸었고,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 걸으며 뛰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사도행전 3:1-8)

믿는 무리는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가 되어,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사도들은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큰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임하였다. 그들 가운데 부족한 자가 없었으니, 땅이나 집을 소유한 자들은 그것들을 팔아 그 값을 가져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레위 사람 요셉은 사도들에게 바나바라는 별명을 얻었는데, 바나바라는 이름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며, 키프로스 출신이었다. 그도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팔아 그 값을 가져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사도행전 4:32-37)

욥바에 다비다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 이름은 도르가라고도 불렸습니다. 이 여자는 선행과 자선 행위로 가득했습니다. (사도행전 9:36)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아홉 시쯤에 고넬료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자기에게 나타나서 "고넬료야"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고넬료가 천사를 보고 두려워하며 "주님, 무슨 일입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천사가 "네 기도와 네 자선이 하나님 앞에 기념이 되리라"라고 대답했습니다. (사도행전 10:1-4)

고넬료가 이르되 나흘 전에 내가 이 시간까지 금식하다가 아홉 시에 내 집에서 기도하매, 보라 밝은 옷을 입은 한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나 이르되 고넬료야 네 기도가 응답되었고 네 구제가 하나님 앞에 기억되리라 하더라. (사도행전 10:30-31)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었으니, 너희는 이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도와야 하며, 주 예수의 말씀, 곧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는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 (사도행전 20:35)

나는 항상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도록 힘썼습니다. 이제 여러 해가 지난 후에 나는 내 민족에게 구제와 예물을 드리러 왔습니다. (사도행전 24:16-17)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었으니, 너희가 어떻게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도와야 하는가 하니라.
그리고 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분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말입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
사도행전 20:35

도둑질하던 자는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오히려 수고하여 손으로 선한 일을 하여 얻은 것으로 궁핍한 자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십시오. (에베소서 4:28)

외전

나 토빗은 평생 진실과 정의의 길을 걸었으며, 나와 함께 니네베로, 곧 앗수르 땅으로 건너간 내 형제들과 내 동족에게 많은 자선을 베풀었다. (토빗 1:3)

에네메살 왕 시대에 나는 내 형제들에게 많은 구제를 베풀었고, 굶주린 자에게는 내 빵을, 헐벗은 자에게는 내 옷을 주었으며, 니느웨 성벽 주위에서 내 민족 가운데 죽은 자를 보면 장사 지어 주었다. (토빗 1:16-17)

네 소유를 나누어 주어라. 자선을 베풀 때에 시기하는 눈을 갖지 말고, 가난한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말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얼굴도 네게서 돌아서지 않으실 것이다. 풍족하면 그에 맞게 자선을 베풀고, 적으면 그 적은 만큼 베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궁핍한 날을 대비하여 좋은 보물을 쌓아 두는 것이다. 자선은 죽음에서 구원하고 어둠 속으로 들어가지 않게 한다. 자선은 지극히 높으신 분 보시기에 베푸는 모든 자에게 좋은 선물이다. (토빗 4:7-11)

굶주린 자에게 네 빵을 주고 헐벗은 자에게 네 옷을 주며, 네 풍족함에 따라 자선을 베풀고, 자선을 베풀 때에 시기하는 마음을 품지 말라. (토빗 4:16)

기도는 금식과 구제와 의로움과 함께 하면 좋습니다. 의로움을 갖춘 적은 것이 불의를 갖춘 많은 것보다 낫습니다. 금을 쌓아두는 것보다 구제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구제는 죽음에서 구원하고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합니다. 구제와 의로움을 행하는 자는 생명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토빗 12:8-9)

그리하여 토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마쳤습니다. 그는 58 세에 시력을 잃었다가 8 년 후에 회복되었습니다. 그는 자선을 베풀며 주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그분을 찬양했습니다. (토빗 14:1-2)

나를 정중하게 장사 지내고 네 어머니도 나와 함께 장사 지내도록 하거라. 그리고 니느웨에 더 이상 머물지 말아라. 내 아들아, 아만이 너를 키워준 아키아카루스를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하여라. 어떻게 그를 빛에서 어둠으로 끌어내렸으며, 또 어떻게 그에게 보상했는지 기억하여라. 아키아카루스는 구원을 받았지만, 아키아카루스는 결국 보상을 받았으니, 그는 어둠 속으로 내려갔기 때문이다. 므낫세는 자선을 베풀어 죽음의 덫에서 벗어났지만, 아만은 덫에 걸려 죽었다. 그러므로 내 아들아, 자선이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의가 어떻게 구원하는지 생각해 보아라. 이 말을 마치고 그는 158 세의 나이로 침상에서 숨을 거두었고, 그는 정중하게 장사 지냈다. (토빗 14:10-11)

물이 타오르는 불을 끌 수 있듯이, 자선은 죄를 속죄합니다. (집회서 3:30)

기도할 때에 낙심하지 말고, 자선을 베푸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말라. (집회서 7:10)

늘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좋은 일이 생기지 않고, 자선을 베풀지 않는 자에게도 좋은 일이 생기지 않는다. (집회서 12:3)

사람의 자선은 그에게 인장과 같아서, 그는 사람의 선행을 눈동자처럼 소중히 여기고, 그의 아들딸들에게 회개를 가져다 줄 것이다. (집회서 17:22)

구제금을 창고에 쌓아 두라. 그러면 그것이 너를 모든 고난에서 구원할 것이다. (집회서 29:12)

금을 사랑하는 자는 의롭다 함을 받지 못할 것이며, 부패를 따르는 자는 그것으로 가득 찰 것이다. 금은 많은 사람을 파멸시켰고, 그들의 멸망이 눈앞에 있다. 금은 그것을 제물로 바치는 자에게 걸림돌이 되며, 어리석은 자는 모두 그것과 함께 잡힐 것이다. 흠 없고 금을 쫓지 않은 부자는 복이 있도다. 그런 자는 누구인가? 우리가 그를 복되다고 부를 것이니, 그가 자기 백성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누가 시험을 받고 온전한 자로 판명되었는가? 그는 자랑할지어다. 누가 범죄할 수 있으면서도 범죄하지 않았으며, 악을 행할 수 있으면서도 악을 행하지 않았는가? 그의 재산은 견고해질 것이며, 회중은 그의 자선을 선포할 것이다. (집회서 31:5-11)

선행에 보답하는 자는 고운 밀가루를 바치고, 자선을 베푸는 자는 찬미를 드리는 것과 같다. (집회서 35:2)

형제와 도움은 환난 때를 막아주지만, 자선은 그 둘보다 더 큰 구원을 가져다준다. (집회서 40:24)

성경의 잃어버린 책들

복되고 영원히 영광스러운 동정녀 마리아는 다윗 왕가의 후손으로 나사렛에서 태어나 예루살렘의 주님의 성전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요아킴이고 어머니는 안나였습니다. 아버지의 가문은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었고, 어머니의 가문은 베들레헴 출신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주님 보시기에 소박하고 올바르며, 사람들 앞에서 경건하고 흠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재산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한 부분은 성전과 성전 봉사자들에게, 다른 한 부분은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나머지 한 부분은 자신들과 가족을 위해 남겨 두었습니다. (마리아 탄생 복음 1:1-4)

요아킴아,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보고 놀라지도 마라. 나는 주님의 천사이니, 주님께서 네게 보내신 것이다. 네 기도가 응답되었고 네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왔다. (마리아 탄생 복음 2:3)

그 후 천사가 그의 아내 안나에게 나타나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보는 것이 영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당신의 기도와 구제를 하나님 앞에 올린 천사이며, 이제 당신에게 보내진 것은 당신에게 딸이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 딸의 이름은 마리아라 불릴 것이며, 모든 여자 중에서 가장 복을 받을 것입니다." (마리아 탄생 복음 3:1-2)

헤르마스의 목자 제 3 권 2:1-13 (비유)
1 내가 밭으로 걸어가서 느릅나무와 포도나무를 보고 그 열매를 생각하니 천사가 내게 나타나
이르되 네가 그토록 오랫동안 마음속으로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셨느니라
2 내가 그에게 이르되, 주여, 내가 이 포도나무와 이 느릅나무를 생각하는 것은 그 열매가 아름
답기 때문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 두 나무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본보기가 되느니라.
3 내가 그에게 이르되, 선생님,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이 나무들의 형태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
니다. 그가 이르되, 이 포도나무와 이 느릅나무가 보이지 않느냐? 내가 이르되, 선생님, 보입니
다.
4 그가 이르되 이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지만 느릅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라 하니라.
이 포도나무가 느릅나무에 붙어 지지되지 않으면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할 것이요, 땅에 그대로
있으면 느릅나무에 매달리지 못하므로 열매가 좋지 않을 것이니라. 그러나 느릅나무에 붙어
있으면 자기에게도 유익하고 느릅나무에도 유익이 되는 열매를 맺느니라.
5 그러므로 느릅나무가 포도나무보다 열매를 적게 맺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이 맺는 것
을 보아라. 내가 물었다. "선생님, 느릅나무가 포도나무보다 어떻게 더 많은 열매를 맺습니
까?" 그가 대답했다. "포도나무는 느릅나무에 붙어 자라기 때문에 열매가 많고 질도 좋기 때문
이다. 반면에 포도나무가 땅에 그대로 자라면 열매를 조금밖에 맺지 못하고, 그마저도 질이 좋
지 않을 것이다."
6 그러므로 이 비유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제시된 것이며,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나타냅니다.
내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이것을 제게 명확히 설명해 주십시오." 그가 말했습니다. "들어
보십시오. 부자는 재산이 있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가난합니다. 그는 자기 재산에만 마음을 두
고 주님께 기도를 거의 하지 않으며, 그가 드리는 기도도 게으르고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7 그러므로 부자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구하면, 가난한 사람은 부자를 위하
여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자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십니다. 이는 가난한
사람이 기도에 부유하고, 그의 간구가 여호와 앞에서 큰 능력을 갖기 때문입니다.
8 그러므로 부자는 주님께서 자기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깨닫고 가난한 자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줍니다. 그는 더욱 기꺼이 그리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도록 보살펴 줍니다.
9 가난한 사람은 부자들을 위하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는 그들이 모두 주님의 은혜로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10 그러므로 사람들은 느릅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느릅나무가 포
도나무에 더해지면 포도나무도 느릅나무도 두 배로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깨
닫지도 못합니다.
11 이와 같이 가난한 자가 부자들을 위하여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그들의 재
산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는 그들이 가난한 자들의 재산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
은 서로의 선한 일에 참여하게 됩니다.
12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일들을 행하면 주님께 버림받지 않고 생명책에 기록될 것이다.
13 부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자기 재산이 늘어났음을 깨닫는 자는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니라.

에덴의 잊혀진 책들

스불론 유언장 2:1-21
1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며,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되, 사람뿐 아니라 짐승에게까지도 긍휼을 베풀어라.
2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나를 축복하셨고, 내 형제들이 모두 병들었을 때에 나는 병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주님께서 각 사람의 속셈을 아시느니라.
3 그러므로 내 자녀들아, 너희 마음에 긍휼을 품으라. 사람이 자기 이웃에게 행하는 대로 주님
께서도 그에게 행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4 내 형제들의 아들들이 요셉 때문에 병들어 죽어갔으니, 이는 그들이 마음에 자비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그러나 내 아들들은 병들지 않고 보존되었으니, 너희도 알다시피 그러하
느니라.
5 내가 가나안 땅 바닷가에 있을 때에 내 아버지 야곱을 위하여 물고기를 잡았는데 많은 사람
이 바다에서 죽었지만 나는 다치지 않고 살아남았다.
6 내가 바다를 항해할 배를 처음으로 만들었으니, 이는 주님께서 내게 배를 만드는 데 필요한
이해력과 지혜를 주셨음이라.
7 그리고 나는 그 뒤에 키를 내리고, 가운데에 세워 놓은 다른 나무 조각 위에 돛을 펼쳤다.
8 그리고 나는 그 배를 타고 해안을 따라 항해하며 아버지 집을 위해 물고기를 잡았고, 마침내
이집트에 이르렀습니다.
9 그리고 나는 동정심으로 잡은 물고기를 모든 낯선 사람과 나누어 주었다.
10 만일 어떤 사람이 나그네이거나 병들었거나 노인이면, 나는 그 물고기를 삶아서 잘 손질하
여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나누어 주었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동정했습니다.
11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내가 물고기를 잡을 때 풍성한 물고기를 주시어 나를 만족하게 하셨
습니다. 이는 이웃과 나누는 자는 주님께서 더 많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12 나는 5 년 동안 물고기를 잡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고, 아버지 집안 모든 사람
에게 충분했습니다.
13 여름에는 물고기를 잡고 겨울에는 형제들과 함께 양을 쳤습니다.
14 이제 내가 행한 일을 너희에게 밝히겠다.
15 나는 겨울철에 헐벗음으로 고통받는 한 사람을 보고 그를 불쌍히 여겨 몰래 아버지 집에서
옷 한 벌을 훔쳐 그에게 주었다.
16 그러므로 내 자녀들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것으로부터 주저 없이 모든 사람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선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주어라.
17 만일 너희에게 필요한 자에게 줄 능력이 없거든, 불쌍한 마음으로 그를 불쌍히 여기라.
18 내가 그의 필요를 채워줄 형편이 되지 못하여 그와 함께 7 펄롱을 걸으며 울었고, 그를 불쌍
히 여겨 마음이 아팠음을 아뢰었다.
19 그러므로 내 자녀들아, 너희도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라. 그러면 주님께
서도 너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실 것이다.
20 이는 또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그의 긍휼을 땅에 보내실 것이요, 그가 긍휼의 마음을
발견하는 곳에는 그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니라.
21 사람이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만큼 주님께서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십니다.